

2월의 기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 1. 2015년 한해 동안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2015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2015년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5년 3월 3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특별성회가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박우택(원로장로),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신한림, 안희순, 오현주, 원소선, 이형춘,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세상 마음과 천국 마음

미국의 성공학자인 마크 스티븐스(Mark Stevens)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나이에서 벗어나 젊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70, 80세가 되어도 젊고 보수적인 생각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젊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대를 우리가 교훈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넓은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지식이 발전합니다. 넓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자꾸 듣고 보고 배워서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야 되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넓은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넓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넓은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따라 다니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중심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마음과 세상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중심으로 천국의 마음을 통해 확실히 믿음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한 생각과 희망찬 꿈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의 말로 고백하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천국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길 바라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 부흥과 치유대성회

“인도네시아여 복음위해 일어나라” 1만5천여 명 참석, 4차원 영성 품고 ‘기적’ 체험



인도네시아의 도서(島嶼) 가운데 하나인 칼리만탄 섬에 위치한 발릭파판에서 2월 3,4일 열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는 ‘치유’의 현장 그 자체였다. ‘부흥과 치유’를 주제로 발릭파판 스포츠 앤 컨벤션센터(Balikipapan Sports and Convention Centre•BSCC)에서 열린 이번 성회는 인도네시아 베다니교회연합과 베다니 발릭파판교회가 주최하고, DCEM의 주관으로 1만5000여 명이 모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이들에게 4차원의 영성을 통한 긍정적 신앙을 강조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한 회복을 강조한 말씀은 그동안 가난과 질병에 묶여 있던 이들에게 성령의 단비이자 생명수 역할을 했다. 조용기 목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 변화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믿음, 꿈과 말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긍

정의 요소를 넣을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꿈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꿈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준다. 나 역시 현재까지 지구를 125바퀴 돌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신 능력을 믿고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특히 환경적 축복을 바라는 발릭파판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개인의 회복을 통한 영적 부흥을 당부했다. 그리고 발릭파판과 인도네시아의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해 발릭파판 성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회는 조용기 목사 외에도 김성혜 한세대 총장과 니코 노토라하조 목사(자카르타 GBI)가 초청돼 이들 동안 진행됐다. 성회가

열리는 동안 BSCC는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했던 것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천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저주와 질병, 가난을 짊어지셨음을 알고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감동의 눈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DCEM은 발릭파판을 시작으로 2015년에도 활발한 선교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1964년 4월 조용기 목사가 단돈 100달러와 미숫가루가 담긴 봉투를 들고 미국으로 가서 선교한지 만 50년이 됐다. 지난 50년간 복음을 들고 목숨을 다했던 선교지에서 초청을 받은 조용기 목사가 다시 성령의 치유 역사를 재현할 예정”이라면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6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삼상 16:5-13) 이에 이새의 아들들이 단장을 하고 사무엘 앞에 섰지만 막대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시며, 사람 보기에 아주 형편없고 형제들 중에서도 왜소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사무엘에게 인사조차 시키지 않은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속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 나는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정된 차원에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창조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땅만 다스릴 뿐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창1:27-28) 우리에게 의해서 만물이 정복되고, 발명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IT 제품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에 있는 짐승들 역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

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오셔서 우리 등을 두드려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오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감동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과 꿈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늘 상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이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고, 늘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크건 작건 꿈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성회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맞기는 맞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후반기 인생에는 다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일정은 아주 빠빡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7시간, 비행장에 내려서 3시간을 기다리고 또 국내선 비행기를 2시간이나 타고 성회장소인 발릭파판에 도착해 그 이튿날부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마치고 늦은 밤에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2시간을 타고 자카르타로 나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굉장히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젊구나. 내 꿈을 바라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저는 온 천하만 국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 100살이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믿음과 창조적 선인**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꿈을 통해서 말하고,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언어를 통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즉,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듯이 말속에는 태산을 옮길만한 에너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시107:20)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저주를 하면 저주의 에너지가 나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영은 4차원에 속하고, 육신은 3차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창조하며 살고, 하나님처럼 믿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을 기르시고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윗에게 복 내려 주셨듯이 우리 인생에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발릭파판 대성회 이모저모

### 초교파적으로 열린 성회, 인근 국가 목회자도 참석 주가 주신 ‘꿈’ 품고 이번과 다른 ‘나’ 기대



DCEM주관으로 2월 3,4일에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가 열린 발릭파판은 우리에게 보르네오섬으로 친숙한 칼리만탄섬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 째로 큰 섬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세 나라의 영토로 나뉜다. 동칼리만탄에 위치한 발릭파판은 항구도시로 풍부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으로 부유하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발릭파판은 현재 가톨릭을 포함해 140여 개 교회가 있다. 이 중 성회를 주관한 베다니 발릭파판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5000명의 성도가 출석 중이다. 이 교회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칼리만탄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신학교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크리스천 일꾼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베다니 발릭파판 교회는 이번 성회를 준비

하며 인도네시아 영적 회복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초교파적으로 열린 성회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 목회자들도 참석해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성회에는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를 비롯해 순복음강남문화예술팀도 참석했다. 문화예술팀원들은 성회 중 한국 전통공연에 나서 문화예술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세계교회성장의 표본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열린 이번 성회를 두고 발릭파판 성도들의 반응은 고무적이었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한 ‘꿈’을 품었다. 성도들은 개인의 삶과 신앙의 성장을, 목회자들은 교회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전과 다른 ‘나’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성회에서는 수 많은 간증이 이어

졌다. 브레드리카 민피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은 “나는 다리뿐 아니라 복합적인 질병으로 힘들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도중 기적을 경험했다”며 주께 영광 돌렸다. 수시안티 성도는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다. 육신과 영의 변화를 토대로 우리는 발릭파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회를 주최한 베다니 발릭파판 교회 담임 사무엘 쿠스마 목사는 “이번 성회는 강력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안고 발릭파판 복음화에 전력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 주변 국가들의 영적 갱신을 위해 사명감을 안고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말했다.

### 인도네시아 영적도해

## 전체 인구 중 15%가 기독교 믿어, 오순절 교단 통해 제2부흥기, 추수 일꾼 필요

인도네시아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6, 17세기이다.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과 맞물려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 가톨릭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는 정부가 인정하는 다섯 종교 중의 하나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려 있는 실정이다. 네덜란드 식민 시절, 회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선교사들의 사역에 방해가 심했다. 네덜란드 선교사들은 회교도들이 많은 지역 대신 정령승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을 전개했다. 이번에 성회가 열린 발릭파판 지역을 비롯한 칼리만탄 섬이 이에 속한다.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령승배 지역

에서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자바인들을 통해 개신교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있다. 자바인들은 성격이 온순하여 급진 회교사상을 싫어하는 탓에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바섬과 중부지역 대도시가 기독교에 대해 개방적인 반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남부의 람뽕족 지역과 서부의 미낭족, 최북부 지역의 아체족, 자바섬 서부의 순다 지역과 동부와 마두라섬의 마두라족 지역, 발리, 술라웨시 남부 지역은 미전도종족으로 분류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오순절 교단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제2의 추수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어 이들을 위한 선교사 파송 또는 현지 목회자 양성이 필요하다.